

전남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지정 기대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언급... 시범단지 조성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스마트시티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구현돼 교통·에너지·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솔루션이 한데 모인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개발을 추진 중인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옛 J프로젝트) 구성 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도의 순환을 위한 첫 단추가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지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수목적법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골프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사업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조성 계획을 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2만1000㎡(634만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을 자체 공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 태양광 발전단지과 세계 최대 규모인 255MWh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저장한다는 복안이다.

또 탄소 제로 교통정책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대인 100ha 규모 스마트 팜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온실, 작물별 특화온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갖춘다.

솔라시도 구성지구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5년 낙후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완성된다는 점도 큰 의미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지정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솔라시도가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낙후된 서남해안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범도시 지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오는 17일 호남현대목포에서 전남도 미래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혁명시대 스마트시티의 역할 등 전남도가 선도해 나갈 글로벌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간공원 20층 이하 고도 제한·비공원 개발면적 축소"

광주시, 공원일몰제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오늘 결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수암·마복·송암·봉산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11일 결정된다.

광주시는 10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심사단 30명 가운데 20명 이상의 심사단이 참석해 제안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평가(5점)와 함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1일 평가(30점), 계약평가(7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송암공원(면적 52만4927㎡)과 마복공원(21만6150㎡)에 각각 3개와 4개, 수암공원(29만6211㎡)과 봉산공원(29만4369㎡)에 4개와 1개 등 모두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봉산공원은 1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며, 나머지 3개 공

원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10일 시민심사단의 평가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암공원은 고도 100m 이상이 절반에 이르는 등 자연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마복공원은 부지 20% 정도가 국공유지라는 점, 수암공원은 비행금지구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발 면적과 아파트 층수를 얼마나 줄이고 낮춰 공원과 조화를 이루려 했는지가 제안서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오후 늦게 4개 공원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시는 우선협상자와의 협상 기준을 스카이라인 유지, 시민접근성, 장애인 접근성, 비공원시설 면적 등으로 정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기준에는 20층 이하 고도 제한, 비

공원 개발 면적의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돼 있어 최종 사업자 결정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당초 6개월에서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1단계인 4개 공원을 제외한 21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해제, 공공조성, 민간 조성 등 원칙적으로 대상과 사업 방향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이 21개 공원에 포함돼 있는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광주·전남 첫 부단체장 자체 승진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전남의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켰다.

광산구는 지난 9일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성수 자치행정국장(4급)을 광산구 부구청장(3급)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이번 승진인사는 광주와 전남의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용한 최초 사례로, 민형배 구청장이 자체 승진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광산구의 부구청장 자체 승진은 지난 1995년 풀뿌리민주주의 기치에 따라 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시작된 이래 광주·전남에서는 첫 사례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

체가 소속 공직자를 자치구로 보내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이번 광산구의 자체 승진은 '관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 행정'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소속 공무원 승진 등의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또, 자치구 공직사회의 '내부 자치'를 구현했다. 광산구는 업무 파트너로서 부구청장을 공직조직이 직접 선택해자는 원칙을 세우고 6급 이상 공직자들의 의견을 내부 전담을 통해 파악했다. 광산구의 이번 승진인사에는 공직사회의 의사도 반영된 셈이다.

신임 이성수 부구청장 이력도 화제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전국 최

초로 시행한 '동장주민추천제'로 수완장(4급)에 취임했다. 주민 추천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10일 공식업무를 시작한 이 부구청장의 경우 두 번의 승진 과정에서 대중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참여와 자치'에 특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부구청장은 1978년 공직 입문 후 광산구에서 감사관, 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 등 역임했다.

이번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구의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와 같은 인사교류는 어렵게 됐다"고 밝혀 향후 광주시와 광산구정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변화를 예고했다.

/최승철기자 srchoi@



끝낼 수 없는 수요시위 10일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31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소유로 되돌려달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등 12개 언론계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서울 프레스센터를 언론계 소유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간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언론단체 12곳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단체의 무상임주 등을 약속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 정부의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신문협회 외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관훈클럽신영연구회, 한국어기자협회, IPT한국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대한언론인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사건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등이다. /전연기자지 ei6621@

완도산 김 활용 건강식품 2종 해수부 '우수 연구성과'

전남해양바이오연구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원이 연구개발한 완도산 김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2종이 해양수산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10일 전남해양바이오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생물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완도산 김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사업이 2017년 해수부 해양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8선에 뽑혔다.

해수부는 기술의 차별성·독창성,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등을 평가해 기초단계(논문), 응용단계(특허), 개발단계(기술이전 및 상품화)로 나눠 8선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대표 해조류인 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이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개발단계 부문 우수 성과로 인정됐다. 건강기능식품 산업화는 완도의 대표 해양생물자원을 김을 활용해 상품화한 건강기능식품 'AMPMP하루면역'과 젤리

형 건강기능식품 '구미당김'이다.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27억5000만원을 들여 김·청각 등 전남지역 해조류를 활용한 건강증진용 식품 산업화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임영태 전남해양바이오연구원장은 "앞으로 독성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김을 개발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쓸분 대출

※오전경매대부 대표 최석선 등록번호 2016-금강원 0622 변경이자를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도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계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월 4점수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8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등)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